

사업 덩치 키우고 대체식품 개발... 식품업계, 생존 사활

매일유업 식물성 대체유 개발
아몬드브리즈 등 시장 포문

엠스씨드 풀바셋 DT매장 확대
작년 영업이익 148억, 111% 증가

동원F&B 크리스피 프레시 확장
식자재 자체조달로 수익 극대화



크리스피 프레시



크리스탈 제이드 도곡점

식품회사들이 성장 정체를 벗어나기 위해 기존 사업 외에 외식사업과 대체식품 개발에 힘주고 있다. 유제품 제조 개발 기업 매일유업과 동원그룹의 종합식품회사 동원F&B가 대표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저출산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대응으로 신사업 확대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우유, 분유를 비롯한 유제품 수요 부진 등 경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물성 대체유 개발과 지주회사인 매일홀딩스를 중심으로 수익다변화에 나섰다.

매일홀딩스 자회사 엠스씨드는 외식사업 덩치를 키우고 있다.

엠스씨드는 커피전문점 '풀바셋'과 이탈리아 레스토랑 '더 키친 일브로노', 중식당 '크리스탈 제이드'를 운영하고 있다.

크리스탈 제이드는 전세계 12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중식당으로 매일유업은 2009년부터 국내 크

리스탈 제이드의 운영을 맡고 있다. 현재 크리스탈 제이드의 국내 매장수는 15개에 달한다.

커피 전문점 풀바셋도 연간 10여개 안팎의 매장을 오픈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운영 매장은 138개다.

풀바셋은 올해 DT(드라이브스루) 매장 확대에 집중했다. 1월부터 8월까지 문을 연 19개 매장(리뉴얼 포함) 중 8개 매장(약 42%)이 DT 매장이다.

풀바셋은 매장 수가 적어 타 커피전문점에 비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 사측은 무조건 매장을 늘리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 회전율이 높은 DT 매장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엠스씨드의 지난해 영업이익

은 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고, 특히 크리스탈제이드는 지난해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 제작년 3억원 영업손실에서 흑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일유업의 영업이익이 607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줄어든 것과는 상반된다.

동원F&B는 자회사 동원홈푸드가 2020년과 2021년 각각 선보인 샐러드 브랜드 '크리스피 프레시'와 이탈리아 가정식 레스토랑 브랜드 '포르투7' 사업 확장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크리스피 프레시는 현재 12개 매장을 두고 있으며 포르투7은 지난달 4번째 매장 '롯데몰 김포공항점'을 열었다.

외식사업 덩치를 키우는 데에는 자체적으로 식자재 조달이 가능해 수익성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피 프레시와 포

르투7 모두 국내 최대 수산 기업 동원산업이 엄선한 신선한 연어와 참치, 국내 B2B 조미식품 1위 동원홈푸드의 소스를 사용한다.

대체 식품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매일유업은 현재 대체유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5년 '아몬드브리즈'를 국내에 들여와 국내 대체유 시장 경쟁의 포문을 열었으며 2021년 자체 개발한 '어메이징 오트' 브랜드를 빠르게 성장시켰다.

어메이징 오트는 출시 1년 만에 판매량 2000만팩을 넘어섰으며 매일유업의 지난해 전체 식물성 음료 판매량은 전년 대비 30% 가량 증가했다. 커피 전문점들이 우유 대신 식물성 대체유를 옵션에 포함시키면서 대체유의 B2B 사업 확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 주요 계열사 하반기 온라인 신입 채용

CJ는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 ENM, CJ올리브영 등 주요 계열사에서 '202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서 접수는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이후 서류전형 합격자는 테스트와 1차·2차 면접, 직무수행능력평가(인턴십) 등 계열사별 맞춤형 전형을 거치게 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경 입사하게 된다.

지원자들은 모집 계열사 중 1곳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각 계열사 사업분야 및 직무에 따라 맞춤형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 확인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컬리너리스퀘어 바이 아워홈' 아워홈, 브랜드 론칭

글로벌 푸드케어&케이터링 기업 아워홈이 여의도 IFCC몰 지하 3층에 프리미엄 푸드홀 브랜드 '컬리너리스퀘어 바이 아워홈'을 새롭게 론칭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워홈은 '전세계 식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하고 일상의 휴식과 여유로움, 셀렘이 공존하는 광장과 같은 공간'을 브랜드 콘셉트로 잡았다. '컬리너리'는 세계 각국의 대표 음식과 글로벌 축제 속 음식까지 다양한 음식을 주제로 새로운 맛과 멋을 제안한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스퀘어'는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기며 재충전할 수 있는 광장의 기능을 지향한다.

편안한 식사와 휴식이 가능한 차별화된 공간 설계를 중심으로, 전세계 다채로운 식문화를 경험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신원선 기자

베스킨라빈스 쿠키런 협업 키링 선봬

SPC 베스킨라빈스가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과의 협업을 기념해 덕심을 자극할 '쿠키런: 킹덤 영혼석 키링 베스킨라빈스 에디션'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두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쿠키런: 킹덤 영혼석 키링 베스킨라빈스 에디션'은 베스킨라빈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스페셜 영혼석 키링 3종'과 쿠키런에서 베스킨라빈스에서 한정으로 선보이는 '리미티드 영혼석 키링 7종'을 포함해 총 10종이 랜덤으로 구성됐다.

베스킨라빈스는 굿즈출시를 기념해 오는 21일까지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2030세대 잡아라”... 신세계百, 뉴 스트리트 전문관 오픈

강남점 8층에 벌스데이수트 유치
에이트디비전 등 브랜드 '한곳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스트리트 패션 전문관을 열고 2030세대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신세계에 따르면 강남점 본관 8층이 '뉴 스트리트' 전문관으로 새단장해 문을 열었다. 신세계는 젊은 감각의 새로운 브랜드를 대거 유입해 2030세대 소비자를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스트리트 브랜드 '벌스데이수트'와 '우알롱' 매장을 업계 최초로 유치했다. 또 '에이트디비전(8 Division) 프로젝트(PROJECT)' 등 젊은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브랜드를 한 데 모은 편집 매장도 국내 백화점 처음으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8층 '뉴 스트리트'에 자리한 '이미스'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 고객들.

/신세계

입점한다. 프로젝트 매장에서 유명 스트리트 브랜드 '스투시'도 판매한다.

아울러 지난 2월 부산 센텀시티점 '하이퍼그라운드'에서 먼저 선보여 인기를 끌었던 '이미스', '포터리', '인스턴트핑

크', '아웃스탠딩' 등도 입점했다. 강남점보다 먼저 MZ 전문관으로 재개장한 하이퍼그라운드는 지난 6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20대와 30대 고객이 각각 101%, 87% 늘고, 부산 외 지역 고객 수가 6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CJ제일제당, 배달커머스 상품 개발 나서

우아한형제들과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은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배달커머스 전용 상품 개발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제휴협약(JBP)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CJ제일제당 김상익 식품한국총괄, 김현진 디지털사업본부

장, 최자은 마케팅본부장, 임현동 이커머스담당과 우아한형제들 이국환 대표, 권재홍 사업본부장, 전성준 커머스센터장, 권혁진 MD실장 등 양사 경영진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CJ제일제당은 자사의 제품 기획·제조 경쟁력과 배민의 데이터·플랫폼 운영·물류 인프라 경쟁력이 만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케팅과 유통 부문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신원선 기자

풀무원, 업계 첫 '수소 전기트럭' 도입

ESG경영 일환... 온실가스 저감 기대

풀무원이 ESG경영 실천을 위해 식품업계 최초로 물류 현장에 저공해 차량인 수소 전기트럭을 도입한다.

풀무원은 수소 전기트럭이 기존 경유차 대비 투입 비용이 다소 높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형 화물차에 수소 전기트럭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충북 음성-시화, 음성-여주 2개

물류 노선의 건면, 김 등 상온 제품 운송에 사용되고 있으며 내년에 냉장 제품 운송이 가능한 냉장 수소 전기트럭 2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상온, 냉장 수소 전기트럭을 총 76대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풀무원이 도입한 수소 전기트럭은 환경부 저공해 차량 1종 인증을 받은 차량이다. 기존 디젤 트럭과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